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2/전송(02)793-8702 **의무법제국 국장** 김상구(6573) **의무팀장** 이재용(6540) 팀원 이은혜(6542) E-mail: luvu000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- 13752호

시행일자 2024. 1. 2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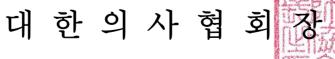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(질병관리청)

- 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-215(2024.1.23.)
- 3. 우리나라 한센병 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0.01명(2023년 기준)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4. 그러나, 한센병 발생 사례가 크지 않고 의료현장의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들어 의료진이 한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5. 이에, 질병관리청에서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"한센병 우선순위 국가"*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**발진, 구진, 결절** 등 **피부증상** 및 **신경손상을** 동반한 "한센병"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(WHO):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콩고, 모잠비크, 방글라데시, 에디오피아, 나이지라아, 네팔, 소말리아, 탄자니아, 마다가스카, 스리랑카, 필리핀, 앙골라, 남수단, 미얀마, 코디부아르, 수단, 이집트, 코모로, 키리바시, 마이크로네시아

※ 붙임: 질병관리청 공문 1부. 끝.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